

●●● 김 영 준 (주)체리부로 농가협의회장

## 닭고기 산업 발전위해 노사가 함께 뛰다



**보**고는 지난 10월 31일 열린 (주)체리부로 농가협의회 창립 5주년 기념대회에 즈음하여 농가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김영준 회장을 만나 향후 계열화사업의 발전방안과 농가협의회 활동계획을 들어보았다.

김영준 회장은 경북 상주에서 10여년간 5만수의 육계를 사육하고 있다. 1970년도에는 새마을 지도자로 활약을 하였고, 1989년부터는 상주단위 농협조합장을 지낸 바 있다. 또한 육계를 시작한 이후 대한양계협회 경북지회 상주지부장을 역임 하였고 현재는 육계자조금 대의원직을 맡고 있다. 특히 2003년부터는 (주)체리부로 농가협의회장을 이끌어 오면서 계약사육농가의 권익보호는 물론 (주)체리부로의 이윤창출을 위해 정렬을 아끼지 않고 있다.

### 계열화를 종속관계가 아닌 상생관계로

2002년에 구성된 (주)체리부로농가협의회는 농가들을 위해서만 존재하지 않는다. 김영준 회장은 '계열사가 베풀면 모든 것은 잘 되게 되어있다'고 설명한다. 김영준 회장은 애초에 계열화의 구조는 지주와 소작농간의 관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관계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을 줄 알았지만 (주)체리부로 김인식 회장을 만나면서 이러한 생각은 점점 바뀌기 시작했다. (주)체리부로는 농가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정책을 썼고 농가들에게 귀를 기울여주었다. 따라서 초대 회장을 지낸 이수호 고문을 주축으로 결성이 된 농가협의회가 하나의 창

구역할을 하면서 애로사항을 풀어주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 2년남짓 불경기가 엄습하고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을 흔들어 놓을 때 도계장 및 부화장 가동중단 등 업무가 마비되면서 2004년 회사가 화의를 맞게 되었는데 다행히 사육농가협의회를 주축으로 '회사가 살아야 농가도 살 수 있다' 라는 신념하에 회사를 믿고 정상적인 생산에 참여하였다.

당시 농가들은 4~5개월 이상 사육비를 한 푼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만약 농가들이 입추를 거부했다면 지금의 (주)체리부로는 없었을 것이라고 회고하였다.

김영준 회장을 위시한 농가들은 항상 좋은 품질의 육계를 회사에 공급하고 있으며, (주)체리부로의 김인식 회장은 항상 농가에 불이익을 주면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즉, 농가와 회사와의 관계가 종속관계가 아닌 상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다. 현재 체리부로 농가수는 158농가로 한번 들어온 구성원은 거의 변동이 없는 것이 자랑거리이기도 하다.

### 농가의 이익 우선적으로 대변

김영준 회장은 지금 현재 다른 계열사는 사장 얼굴을 한 번도 못본 농가들이 많겠지만 체리부로는 다르다고 말한다. 사장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기회도 많고 스스로없이 대화를 할 수 있어 발전적인 방안이 도출된다고 한다.

과거에는 900원 이하로 가격이 형성되면 100원 하락시 사육비를 10원씩 제하던 것을 농가의 요구를 받아들여 완전 철폐하였으며, 또한 비품에 대해서도 회사에서 부분육 시장을 늘려가면서 비품율을 줄여주고 있다. 비품계가 많으면 농가와 회사도 손해를 보는데 부분육 시장이 형성되면서 부



▲(주)체리부로 임직원과 계열농가 대표들이 한자리에

분적으로 비품계에 대해 충분히 받아주어 서로 윈윈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또한 무항생제 닭고기도 회사와 농가가 같이 고민하고 있다. 신년부터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적용할 예정이고 농가들의 반응도 좋게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주)체리부로는 농가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매년 농가 사육성적을 발표하는데 생산지수가 280이상과 300이상의 그룹을 선발해 보너스를 지급하면서 농가들이 더욱 열의를 갖고 사육에 임하도록 한다. 김영준 회장도 금년에 전체 농가중 10%이내에 드는 성적인 280그룹에 들면서 우수한 성적을 낸 바 있다.

네덜란드의 철학자인 스피노자는 '내일 세상이 무너져도 난 한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라는 명언을 남긴 것처럼 김영준 회장은 네덜란드 국민들이 이말을 듣고 생명산업인 농업을 살렸듯이 우리 양계산업도 하나로 뭉쳐 같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자조금 사업 활성화에 대한 열정은 농가들 못지않게 회사에서도 적극적이라고 설명하면서 자조금을 반대하고 있는 타 계열업체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김영준 회장은 다른 회사들도 (주)체리부로서처럼 형식적인 협의체가 아닌 대화로 풀수 있는 협의체로 발돋움하여 육계산업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리 | 김동진 편집장, dj@poultry.or.kr)